



나무는 기쁨, 더하는 사랑
세브란스가 함께 합니다

Yonsei, Making History in Medicin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발전기금사무국 tel_ 02. 2228.1087 fax_ 02. 2227. 7982

다 시 또 처 음

멈출 수 없는 그 사명에 연세의대가 응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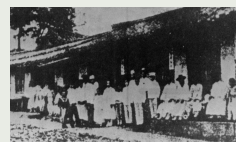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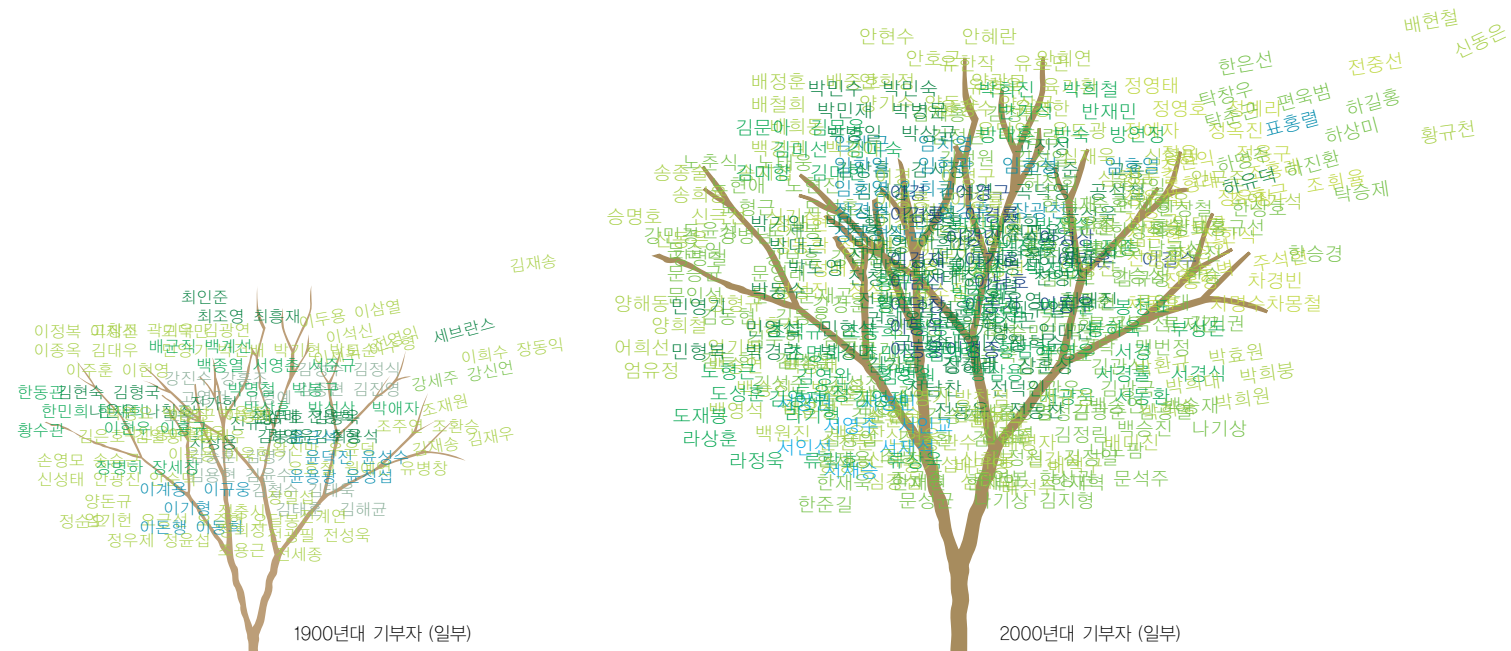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모금명분서

누군가의 나눔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더해질 때 대한민국과 세계의료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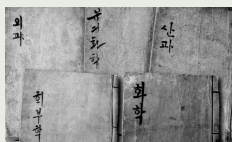
Let's make *forest* with세브란스



1886년
최초의 서구식 의학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904년
한국 의료기관 최초의 기부로
최초의 서구식 병원이 지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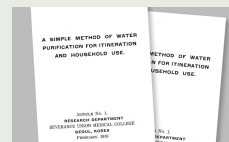
1905년
최초의 한글 의학교과서가
출판 되었습니다.



1908년
최초의 면허의사 7인을 배출
했습니다.



1914년
최초의 인턴 교육제도가 시작
되었습니다.



1914년
최초로 의학연구부가 개설
되었습니다.



1972년
최초로 행동과학 교육이 실시
되었습니다.



1974년
최초로 의대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가 건립되었습니다.



1996년
최초로 의과대학 인증평가
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2003년
최초로 국제실험동물관리협회
로부터 최고 등급인 '완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3년
아시아 최고의 동물실험실을
갖춘 연구시설(ABMRC)을
개원하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졸업생
제중원 의학과의 1회 졸업생 7인과 허스트 교수(1908)



‘처음’ ‘최초’ ‘시작’ ...

이 단어들은 지난 130여년간 연세의대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 늘 거칠고 험겨웠지만 연세의대는 그 사명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회 졸업동문이자 한국인 최초의 면허의사 7인 모두는 독립운동을 하거나 한국과 중국, 몽골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어려운 환자를 돌보는데 헌신했습니다. 7인 중 단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살이나 고문, 과로로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외침은 처음 가는 길을 다시 가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의과대학,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병원으로 안정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지금 연세의대는 또 다시 여장을 꾸리고 있습니다.

또 다시 시작해야 할, 저버릴 수 없는 사명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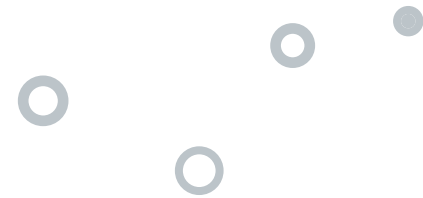


시대의 엄중한 물음 앞에서...

연세의대의 사명은 최고의 인재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보장 받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 사회를 일으켜 세우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연세의대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가장 뒤쳐진 한국 교육 현장을 혁신적으로 끌어 올리하고자 합니다. 의술 기능인이 아닌 근성과 사명감을 가진 최고의 의학 인재로 키우라는 시대의 엄중한 물음에 응답하려 합니다.

우리의 응답은 교육의 철학, 문화, 태도, 시스템, 프로세스, 하드웨어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변화입니다.



변화 가 필요합니다.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연세의대의 독특한 유전자

교육 패러다임의 통합적 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세의대의 독특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인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첫째, 창의적 활동을 하는 “개척 인재”입니다.

지식의 복사, 저장이 아닌 지식을 새롭게 창조해 내는 인재가 연세의대가 추구하는 새로운 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도 “창의인재 전형”을 두어, 창의적 학생을 선발하는 일을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팀으로 일할 수 있는 “협동 인재”입니다.

홀로 탁월한 인재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 낼 줄 아는 팀 리더로서의 인재를 추구합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의 인재들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인재들이 연세의대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셋째,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기독 인재”입니다.

1회 졸업생 7명 중 5명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모두 순국한 것은 연세의대의 정신이고 자부심이며 사명입니다. 연세의대는 올바른 가치관과 열정을 가지고 지구촌 곳곳의 문제들을 위하여 몸을 던지는 사람들을 키워 낸다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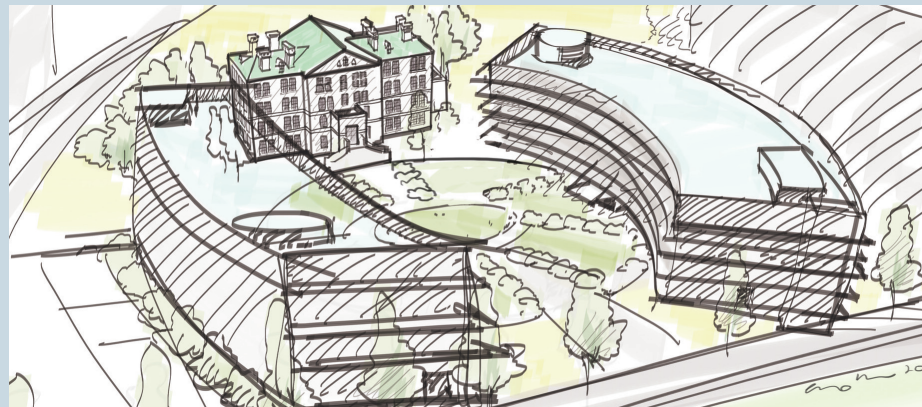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연세의대는 네 가지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1 / 의과대학 및 역사박물관 신축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담은 새 의과대학 건물 신축입니다.

세계 의학교육은 치열하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생각하고, 더 창의적이며, 더 큰 리더십을 가진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만이 국가는 물론 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팀바탕학습(Team-Based Learning) 교육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 공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새로운 연구공간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연세의대는 새로운 의대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의학교육과 연구에 도전하고 있으며, 건물은 그 도전을 담아낼 그릇이 될 것 입니다.



● 의과대학 신축 개요

- 연건평(예상) : 15,000평 - 총 건축 비용(예상) : 800억원 - 모금 목표액 : 200억원

● 후원자 명명(命名, Naming Opportunities)

의과대학 신축을 위해 1억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념하고자
특정 공간에 명명합니다.

이 교수실은 홍길동(1948년 졸업)님의
고귀한 뜻과 정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후원자 기념 명판의 예)

대한민국의 의료 역사를 보존 및 계승하고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 의학의 역사는 곧 연세의대의 역사입니다.
의학교육의 기록을 보존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교육하고 전달하는
역사적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박물관은 역사에 대한 큰 자부심과 세브란스 정신의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근·현대 의학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제중학사 재건축



의과대학 학생기숙사인 제중학사의 재건축입니다.

1974년, 연세의대는 대한민국 최초로 동문선배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의과대학생 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를 건축하였습니다. 제중학사를 통해 배출된 의학자, 임상 의사들이 지금의 한국과 세계 의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의 세월을 지나오며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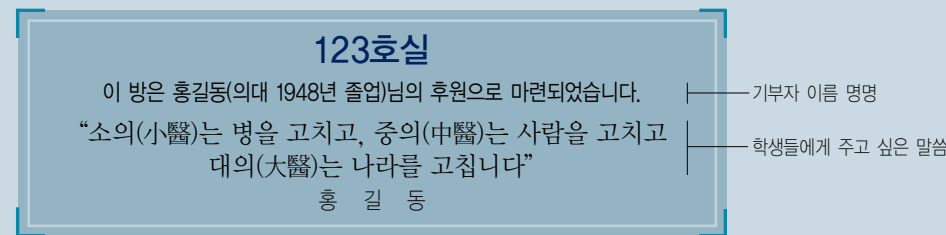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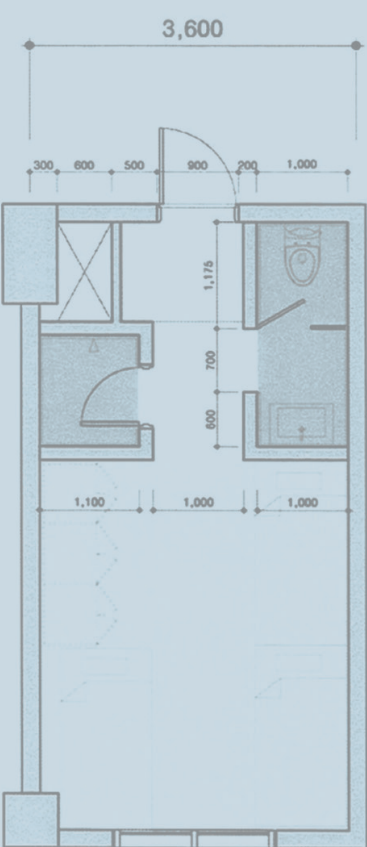
● 재건축 개요

- 대지면적 : 767평
- 연 건평 : 9,144평(지하 3층, 지상 7층)
- 주요 공간 : 476실 (2인 1실, 3인 1실)
- 공사 기간(예정) : 2014년 6월(착공)~2016년 5월
- 총 건축 비용(예상) : 420억원
- 모금 목표액 : 50억원

● 후원자 명명(命名, Naming Opportunities)

제중학사 재건축을 위해 1천만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을 기념합니다.
또한 각 실에 후원자의 기념명판에 학생들에게 전달할 말씀도 표기합니다.

- 제중학사 후원자 명명 기준(특별) : 1천만원 / 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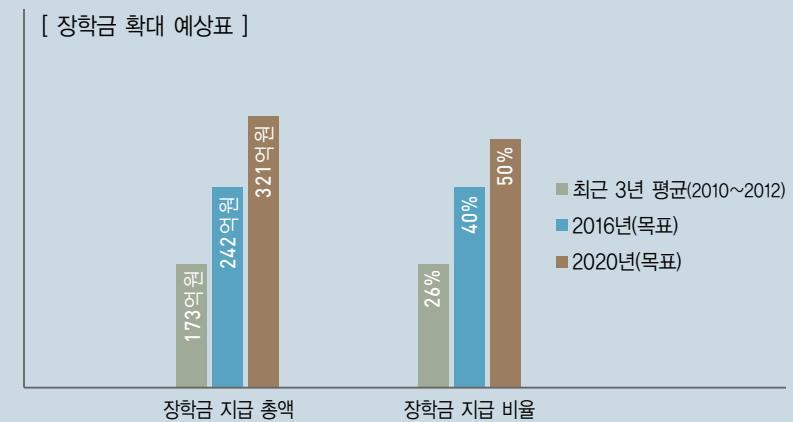
(제중학사 각 실에 부착 될 후원자 기념 명판의 예)

3 장학금 확대



최고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장학금을 더욱 확대 하겠습니다.

정부나 대기업의 지원이 없는 순수한 사립 의과대학으로서 최고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연세의대는 한 명의 의사 지망생이 아닌,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학교육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현재 20% 정도인 장학금 지급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후원자 명명(命名, Naming Opportunities)

기부자의 이름을 기념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분들과 수혜학생은 1년에 한 번씩 만나 멘토링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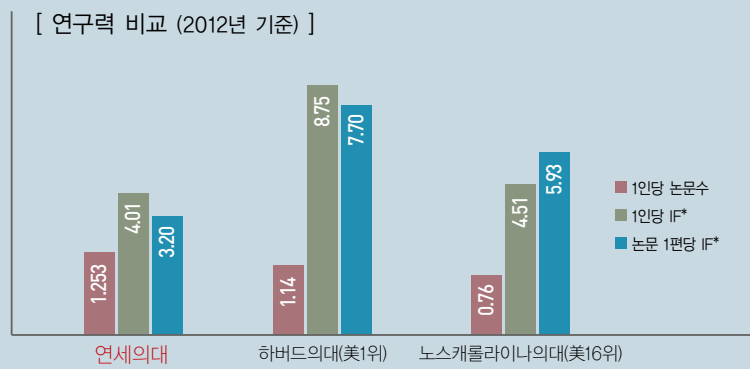
- 장학금 : 1학기 등록금은 약 700만원이며,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기금 : 3억원 이상일 경우, 원금을 보존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연구·발전 기금



첨단 의학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입니다.

연세의대의 연구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며, 미국 의과대학 20위권 대학 수준입니다. 해외 우수 의과대학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서도 선전한 결과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국내 최첨단이며, 아시아 최대의 동물실험실을 갖춘 연구시설(ABMRC)이 완공되어 연구력이 도약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연구비가 더 풍부하게 지원 된다면 연세의대의 연구력은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단기간에 향상 될 것이 분명합니다.



* IF(Impact Factor) : 논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논문 인용 빈도수를 의미함.

● 후원자 명명(命名, Naming Opportunities)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 기부금을 후원해 주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 연구실 및 연구장비에 명판을 제작하여 부착합니다. 또한 기부자의 이름을 명명한 연구기금이나 학술상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000학술상)

이 장비는 홍길동(1948년 졸업)님의
고귀한 뜻과 정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후원자 기념 명판의 예)

- 연구비 지원 : 소액의 연구후원금도 모이면 연구자에게 큰 자원이 됩니다.
- 연구기금(원금보존형) : 10억원 이상일 경우, 기부자의 이름을 붙인 연구기금을 만들어 연구비를 영구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CORE CAMPAIGN

모금캠페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다시 또 처음' 을 위한 모금캠페인이 시작됩니다. 모금 캠페인은 일정 기간 동안 의대의 역량을 모아 집중적으로 거액을 모금하는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모금 캠페인을 통해 연세의대는 역사적 사명을 다시 한번 이루어 낼 것입니다.

- 캠페인 기간 : 2013~2016년 (4년간)
- 모금 목표액 : 450억원

모금 분야 및 목표액

의대 및 역사박물관 신축	200억원
제중학사(의대 기숙사) 재건축	50억원
장학금 확대	47억원
연구·발전기금	80억원
기타(교실 발전기금)	73억원
총합계	450억원





함께

첫걸음을 내딛어
주십시오.



이 새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30여 년간 한결같이 그 힘든 여정을 연세의대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것은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지지해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같은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준 기부자들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조선에 와서 일생을 바친 에비슨 박사님과 이름조차 낯선 그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눔을 이어준 미국의 기업가 세브란스씨, 유한양행 주식기부를 통해 연세의대의 교육과 연구발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유일한 박사님을 비롯한 기부자님들은 수많은 ‘처음’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들이고 ‘또 다시 처음’을 감히 열어가도록 자극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한국 고등교육을 향한 여러분의 자선적 결정은 ‘또 다시 처음’ 가는 그 여정에 든든한 길친구가 될 것입니다.

함께 첫걸음을 내딛어 주십시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그 사명에 응답해 주십시오.

뜻깊은 곳에 쓰겠습니다.



동화홀딩스 **승명호** 회장

승명호 회장은 연세의대의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기금 조성을 약정하여 매년 기부하고 있습니다.

“

기부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 봤습니다. ‘동화’의 기부 철학이 있다면 ‘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기부’입니다. 기부자가 드러나기 보다는,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어야 합니다. 제 뜻대로 하는 기부가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도와주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의 제안대로, 기부금을 가장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

“

긴 안목에서 연구를 위한 투자는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인류에 대한 큰 공헌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개발의 엄청난 파급력과 재생산 효과를 기대합니다. 비록 장기적 투자와 인내가 필요한 분야지만 의료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에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



중앙상선 **김동기** 회장

김동기 중앙상선 회장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대한 후원 뿐만 아니라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ABMRC) 건축기부금 등 연구 발전을 위해서도 후원하였습니다.

“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귀뚜라미의 정신이 세브란스에 기부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위해 의료분야 기부를 생각했고, 그 중에서도 주인이 없는 병원으로서 오랜 기간 명성을 이어온 데는 분명 무언가가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세브란스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사명에 철저한, 그러면서도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는 세브란스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힘이 닿는 한 멈추지 않고 이 기부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명예회장

귀뚜라미 그룹 최진민 회장은 2010년 이래 ‘귀뚜라미’ 교수연구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부하고 있습니다.

“

학교를 떠나 밖에 나가보니, 모교(母校)의 역사와 책임의 의미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데에 모든 동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미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새롭게 짓게 될 의대와 기숙사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대외적으로 큰 일을 많이 감당하여, 대한민국과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



광동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임환섭** 회장

1988년 졸업동기회의 총무로 봉사하면서, 졸업 2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동기들의 뜻을 모아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제중학사 재건축기부금, 장학금 등을 모금하는 일에 수고하였습니다.

소중한 마음 영원히 기리며, 모든 후원자분들께 성심 성의껏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 예우 내역 |

구 분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제중원클럽	광혜원클럽	에비슨클럽	알렌클럽	세브란스클럽	1885클럽
감사서신	●	●	●	●	●	●	●	●	●
기념품	●	●	●	●	●	●	●	●	●
연하장		●	●	●	●	●	●	●	●
감사패				●	●	●	●	●	●
무료주차				●	●	●	●	●	●
건강검진 ※의료원 산하 모든 검진기관에서 사용가능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진료편의				●	●	●	●	●	●
장례식장 이용료감면 (기부자 내외)					30%	30%	30%	100%	100%
특수대학원 학비감면 (기부자 내외)					50%	50%	50%	100%	100%

※5,000만원 이상 후원자는 후원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며, 3억원 이상 후원자는 일정비율의 진료비를 감액해 드립니다.
※모든 후원자께 감사서신과 후원 소식지(간행물)를 증정하며, 후원자의 성명과 기부내용을 의료원 소식지에 게재합니다.
※일정금액 이상 후원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기념하여 공간 혹은 프로그램을 명명합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4가지 영역별로 후원 약정서가 별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 및 역사박물관
신축 후원 약정서



제중학사 재건축
후원 약정서



장학금
후원 약정서



연구·발전기금
후원 약정서

| 세제 혜택 |

1. 기부금 소득공제(세금감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인 경우 소득의 100%, 법인인 경우 50%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세 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공제 시기
-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 포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법인 :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 (연간소득액)	과세표준 구간				비 고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과세비율	6%	15%	24%	35%	과세액 +주민세 10%

※과세표준 : 총 소득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 후원 절차 |

· 누구나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하시어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시거나, 전화(연세의료원 발전기금사무국 02.2228.1085~9)
또는 인터넷(<http://yuhs.iseverance.com/fund>)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 입금방식 |

① 무통장 입금 ② 자동이체(CMS) ③ 급여공제(교직원) ④ 신탁적금(교직원)

| 후원 계좌 |

우리는행 1005-501-628425 (예금주: 연세의료원) ※입금 후 02.2228.1085로 전화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후원 및 예우 문의 |

연세의료원 발전기금사무국
tel_ 02.2228.1087 fax_ 02.2227.7982 e-mail_ fund1885@yuhs.ac

Louis. H. Severance



“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드리는 나의 기쁨이 더 큼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1838~1913)

세브란스씨가 병원건립을 위하여 기부하며 남긴 말입니다.

1885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 _ 광혜원 · 제중원

- 04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06 변화가 필요합니다.
- 08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 10 연세의학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 15 모금캠페인 소개
- 18 후원자 인터뷰
- 20 후원자 예우

The FIRST

